



좋은 공부습관 만들기 놀이와 공부시간

3대1로 즐겁게

초등학교 3학년인 제동이는 방학이 되어 신나기만 하다. 아침에 학원 갔다오면 점심 이후에는 맘대로 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놀고 집에 들어와 보니 벌써 저녁 먹고 잘 시간이다. “아뽀까, 학원 숙제를 못했네...” 제동이는 학원 숙제를 하려 책을 폼했지만, 졸음이 자꾸 밀려와 그냥 잠이 든다.

이슬이는 방학이 되어도 신나지 않다. 학교는 가지 않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가득하다. 아침에 보습학원 갔다가 점심 먹고는 영어학원, 피아노 학원에 간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으로 찾아오는 영어, 수학 학습지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이슬이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엄마에게 같이 하자고 조른다.

위의 두 사례와 같이 방학이면 아이들은 우왕좌왕하게 마련이다.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이이기도

하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공부 습관. 초등학교 5~6학년은 되어야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발적 계획 세우기

앞서 제동이나 이슬이의 문제는 두 아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일과 중에 하게 되는 활동은 크게 공부와 놀이인데, 아이들의 욕구는 주로 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욕구를 이용하면 오히려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놀이의 욕구를 억제하기보다는 일종의 ‘보상’으로 사용하면 공부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이며 하루에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게임이나 TV만화시청이 아이들이 집안에서 하기 좋

아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놀이와 공부로 나눌 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0분이라도 스스로 정한 시간만큼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책 읽는 습관

자녀와 함께 서점에 가 본 적이 있는가? 아동과 함께 서점을 방문해 보라. 먼저 책 제목을 보면서 '어떤 책일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하라. 다음으로는 책의 목차를 훑어보게 하면서, 아동이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책의 소재목들에 물음표를 붙여보게 하라.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화 신은 고양이'의 경우 '어? 고양이가 장화를 신어? 장화는 어디에서 났을까? 왜 장화를 신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책을 선정했다면 아동과 함께 책 읽기 계획을 짜야 한다. 아동이 저학년일 경우,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부모가 아동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독서방법을 지도해 주는 건 어떨까? 이때 부모가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책을 읽어주 기보다는, 서로 교대로 읽든지 아동이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책을 읽으면서 핵심어나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체크하게 하라.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책에서 재미있었던 부분들을 그림이나 역할놀이로 표현하게 하거나, 핵심어를 이용해서 스피드 퀴즈와 같은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다. PPKK

효과적인 공부 방법 10가지

- 1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부 계획을 세운다.
- 2 수업이 시작되기 3분 전에 교과서의 목차를 통해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한다.
- 3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트 필기를 통해 중요한 점을 기록한다.
- 4 수업이 끝나면 3분간 노트를 보면서 핵심 단어를 적어본다.
- 5 집에 돌아오면 노트를 통해 간단히 복습한다.
- 6 암기를 할 때는 책을 덮고 혼잣말로 암송해 본다.
- 7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음악을 듣지 않는다.
- 8 집중이 잘되는 시간에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다.
- 9 우선 순위에 따라 내게 중요한 과목의 공부를 먼저한다.
- 10 책상 주변에는 공부에 필요한 물건만 두도록 하고 공부가 끝나면 깨끗이 정리한다.